

전남광주 농수산물식품 수출 1조300억 ‘역대 최대’

8월 말 기준 전년 대비 8.2% 증가
작년 연간 총 수출액의 69.7% 수준
김 건인...주류·음료 가공식품 성장
올해 12억달러 실적 목표 달성 순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농수산물식품 수출액이 8월까지 1조300억원(7억5천687만달러)을 달성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30일 전남광주특별시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 수출통계 분석 결과, 올해 8월 말 기준 농수산물식품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 늘었다.
김이 전체 수출을 견인하고 주류·음료·커피조제품 등 가공식품도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특별시는 하반기 수출상담회와 중동 한우시장 개척 등을 통해 올해 농수산물식품 수출 12억달러 달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올해 1-8월 수출액은 지난해 연간 수출액 10

억8천531만달러의 69.7%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농·축·임산물 3억4천824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했고, 수산물은 4억863만달러로 6.1% 늘었다. 전체 수출액에서 농·축·임산물은 43%, 수산물은 54%를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전남광주 대표 수출 품목인 김이 3억2천31만달러로 3.9% 증가했다. 전남광주 김은 전국 김 수출액의 40.9%를 차지했다.
농산가공품의 성장세도 두드러졌다. 주류는 5천104만달러로 44.8%, 음료류는 2천925만달러로 36.8%, 커피조제품은 1천953만달러로 16.8% 늘었다. 수산물 가운데 미역도 2천352만달러로 16.8%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1억4천468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미국 1억3천712만달러, 중국 1억2천468만달러, 대만 4천800만달러, 러시아 4천443만달러 순이었다. 지난해보다 미국은 2.1%, 중국은 16.7%, 대만은 6.8%, 러시아는 16.1% 각각 증가했다.
시·군·구별로는 목포가 1억3천866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북구 1억1천959만달러, 나주 8천728만달러, 고흥 8천387만달러, 신안 7천65만달러

순이었다.
특별시는 농수산물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 특화품목 육성과 직불금 지원, 해외시장 개척,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해외 판촉, 바이어 발굴 등 수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0월14일에는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해외 바이어와 지역 수출기업 등 120여개사가 참여하는 수출상담회를 열어 기업과 바이어 간 1대1 상담과 수출 계약을 지원한다.
또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지역 한우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바이어 초청 행사를 추진한다. 전북 해외 판촉 행사와 프랑스 파리 식품박람회(SIAL)에도 참가해 신규 바이어를 발굴하고 해외 유통망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동순 농수산수출팀장은 “전남광주 농수산물식품 수출이 역대 같은 기간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은 우수 농수산물식품과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이 만들어낸 성과”라며 “하반기에도 현장 중심의 수출 지원을 강화해 올해 농수산물식품 수출 12억달러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목포농협이 추진 중인 영농철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 사업이 농업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목포농협 제공>

목포농협, 찾아가는 농기계 수리 호응

올해 740여농가에 860여대 지원
보조금 7천만원 투입 공임 보조

목포농협은 30일 “본격 영농철을 맞아 진행한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 사업이 현장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총 740여농가가 참여한 순회수리 사업을 통해 목포농협은 약 800대의 농기계 수리·점검을 마쳤다.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영농 차질을 막고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7천700만원(상반기 3천500만원, 하반기 4천200만

원)의 보조금을 투입해 공임과 부품 교체를 지원했다.
특히 지난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이어진 하반기 순회수리에는 300여농가가 450대의 농기계를 고쳤다.
앞서 지난 3월 상반기 사업에서는 정비소 이동이 쉽지 않은 도서 지역 농가들을 전담팀이 직접 찾아가며 실질적인 영농 편의를 제공했다.
박정수 목포농협 조합장은 “농기계 고장으로 애를 태우는 조합원들의 손과 발이 되고자 시작한 사업이 현장에 큰 지원이 됐으면 한다”며 “농업인 곁에서 작은 어려움 하나까지 살피는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전남광주농기원 육성 골드키위 ‘해금’ 남반구 진출

뉴질랜드 등 묘목 생산·판매·상업 재배
2038년까지 재배면적 100ha 이상 확대
안정 생산면 2억 안팎 로열티 기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기술원이 육성한 골드키위 품종 ‘해금’이 뉴질랜드를 비롯한 남반구 시장에 진출한다.
30일 전남광주특별시 농기원에 따르면 최근 뉴질랜드를 기반으로 20여개국에 농산물을 수출하는 글로벌 농식품 기업 Bostock NZ와 해금 품종에 대한 국외 전용실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Bostock NZ는 뉴질랜드와 칠레,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해금 묘목을 생산·판매하고 상업재배할 수 있으며, 현지 생산 과실의 해외 판매도 가능하다. 계약 기간은 관련 품종 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 35년이다.
해금은 전남광주농기원이 자체 육성한 골드키위 품종으로 2016년부터 뉴질랜드에서 시험 재배와 품종평가를 거쳤다. 올해 뉴질랜드 품종 보호등록을 마치면서 현지 묘목 판매와 상업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기반을 마련했다.
전남광주농기원과 Bostock NZ는 칠레와 남아공을 중심으로 해금의 해외 재배면적을 2038년까지 100ha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기술원은 최근 뉴질랜드 기반 글로벌 농식품 기업인 Bostock NZ와 자체 개발 골드키위 품종 ‘해금’에 대한 국외 전용실시 계약을 체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기술원 제공>

면적이 100ha 규모로 확대되고 상업생산이 안정화되면 생산량과 판매 가격 등에 따라 연간 2억원 안팎의 품종 로열티 수입도 기대된다.
특히 이번 계약은 국내 육성 키위 품종의 해외 보급을 넘어 남반구에 생산기지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남반구에서 생산한 해금을 국내산 출하 비수기에 공급하면 생산 시기를 연계해 연중 시장 공급이 가능해져 해금의 해외 인지도와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남광주농기원은 앞으로 현지 재배 적응성과

과실 품질, 저장·유통 특성 등을 점검하고 재배 및 수확 후 관리기술을 보완해 해금의 안정적인 해외 보급과 글로벌 브랜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동관 전남광주특별시농기원장 직무대리는 “해금의 남반구 진출은 전남광주가 육성한 키위 품종의 경쟁력을 해외 시장에서 확인하고 국내 육성 품종의 글로벌 산업화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지 재배와 품질관리 기술을 지속 보완해 해금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골드키위 품종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수희 기자

농협 전남본부·지자체, 농촌 인력난 해소 ‘맞손’

계절노동·농업고용 업무 담당자 워크숍
내년 인력 지원 제도 변화 등 선제 대응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는 30일 “최근 국립 나주수채원에서 ‘2026년 전남광주 계절노동·농업고용인력 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은 내년 농촌 인력 관련 제도 변화에 대비하고 현장 실무자들의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으며 농촌·공공형 농촌인력증가사업 운영 농협, 2027년 사업 참여 희망 농협, 전남광주 특별시 및 시·군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무, 인권, 안전 관리 문제와 사업 운영 과정의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교육은 ▲2027년 제도 운영 방향 안내 ▲농작업 안전 관리 ▲고용 인력 노무·인권 교육 ▲전남이민센터 지원 사업 안내 ▲공공형 계절근로 우수 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이광일 농협전남본부장은 “농촌 인력 부족은 개별 농가나 농협의 노력 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구조적 과제가 됐다”며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적기에 영농 인력을 공급하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농촌 인력 지원 체계를 다지겠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철거 전문가

광주·전남 전지역 가능

✓ 철거 경력 20년!

✓ 광주·전남 전 지역 출장 가능

✓ 상가, 주택, 간판, 내부 철거 등

✓ 당일 견적 OK / 소규모 철거도 가능

✓ 안전·정리+깔끔함까지 책임집니다.

현주 제로레벨

☎ 상담전화
010.9842.5570

폐업

60플 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CMYK